창작국악교성곡 '혜초'

"음악으로 오천축 순례"

2월 문화인물 지정기념 27일 국립중앙극장서 초연

"… 길 떠나네 길 떠나네
몸과 마음 다 비우고 오천축으로 길 떠나네
천년 세월 저켠으로 등 돌리는 혜초스님
정법을 구하러 가세 정법을 구하러 가세
부처님 태어나신 나라 오천축으로 떠나는 여행…"

세계정신을 탐험한 최초의 한국인 혜초스님. 부처님의 자취를 찾는 혜초스님을 따라 오늘날의 불자들도 오천축국 순례에 음악으로 동행하게 됐다. 2월의 문화인물 혜초스님 지정을 기념하는 창작 국악교성곡 '혜초'가 오는 27일 오후 7시 국립중앙극장 대극장에서 초연되는 것.

시인 장지현정사의 작사에 김회경씨(국악실내악단 오느름 대표)가 곡을 쓴 국악교성곡 '혜초'는 혜초스님의 구법정신과 순례의 발길이 장엄하게 담겨있다.

"지극한 불심과 굽힐 줄 모르는 모험심, 탐험심을 지닌 혜초스님의 정신이야말로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루게 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신은 새 밀레니엄을 맞아 새 희망을 가져야 하는 현대 한국인들에게도 꼭 필요하고 다시금 되새겨야 하는 정신입니다. 혜초스님의 높은 기상과 불굴의 용기, 온갖 어려움을 다 극복하며 불법을 찾아 떠난 그 깊은 구도심을 가사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장지현정사의 사(詞)는 혜초스님과 같이 순례를 떠나듯 생생하면서도 시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 가사에 김회경씨는 힘있고 드라마틱한 선율을 붙였다. 흥겨운 국악의 선율을 기본으로 혜초스님의 정신을 표현하면서 그레고리안 성가, 인도의 전통 선율을 중간중간 도입해 머나먼 이역에서의 험난한 여정을 상징했다. 또한 남도창과 인도고대악기 오카리나의 선율도 등장해 혜초스님의 굳센 구법의지와 고향을 그리는 애절한 마음도 표현해 냈다.

"국악과 서양음악을 넘나드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불교음악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시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회경씨

◇장지현정사

◇유승엽씨

◇도신스님

◇최진숙씨

이번 공연에는 진각 청룡사 묘각사 길상사 불광사 인천 보명사 수원포교당 중앙불교 조계사청년회 합창단과 중앙대 성악과 남성합창단 등 총 3백명이 연합으로 무대에 서고 중앙국악관현악단 60명이 협연한다. 도신스님과 판소리계의 샛별 최진숙씨, 바리톤 유훈석씨 등도 솔로로 동참한다.

또한 이번 음악회에는 작곡가 유승엽씨가 직접 인도전통악기 오카리나로 자신이 작곡한 '선(禪)음악 혜초'를 들려주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이번 음악회의 총감독은 반영규씨(불교문서포교회 대표), 총지휘는 작곡자 김회경씨, 연습 총지휘는 정옥녀씨(지휘자)가 각각 맡고 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영산재 4개 분야로 나누어 문화재 지정한 것은 실책"

진철승씨 '무형문화재 공청회'서 지적

"영산재를 4개 분야로 나누어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실책이다."

전통문화정책포럼 주최로 1월22일 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린 '전통문화정책의 전환과 모색' 공청회에 참가한 진철승(성보보존위원회 전문위원)씨는 이렇게 지적했다. 불교의식 가운데 최고로 꼽는 영산재를 범패 작법무 도량장엄 범악 등으로 나누어 지정해 놓은 것은 영산재의 본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게 진씨의 주장. 영산재 뿐만 아니라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따로 지정한 것 역시 실책 가운데 하나로 지적했다.

주강현(민속학자)씨는 "무형문화재 지정의 문제점은 수십여년간 독과점적으로 운영된 무형문화재 정책에 있다"며 문화재 위원들이 수십년간 재위촉돼온 현 문화재위원의 전면 교체 등 정책 시정을 요구했다.

인병선(짚·풀문화연구회 회장)씨는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의 인정은 보유자 쪽에 의해 승계되서는 안 되며, 보유자의 사망 이후 새 보유자는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와 심의를 거쳐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문화재 전수자들에게 국가가 전수비명목으로 생계보조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기예를 전수받지 않은 이도 전수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으며, '제자'들에게 고액 과외에 버금가는 돈을 받는 사례가 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요청의 목소리가 높았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사찰건축 공모전 연다

조계종문화부 올 사업 발표

조계종 문화부(부장 양산)는 △사찰시설물 공모전 △북한문화재 조사 △불교문학현상공모 △성보문화재조사 △사지실태조사 △사찰안내서 발간 등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확정했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99건축문화의 해를 기념해 갖는 사찰건축공모전과 사찰건축관련 세미나.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우리 전통건축의 근간을 이뤄온 사찰의 문화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전통사찰내 공공시설물의 모형 공모전이 3월중 실시된다. 전통사찰 경내에 있는 매점 전화박스 자판기 식수대 휴식공간 매표소 관리소 가로등 간이화장실 등은 천편일률적인 모습으로 사찰의 고풍스런 모습과 어울리지 않아 그동안 비판받아 왔다.

문화부는 이번 건축공모를 통해 전통사찰과 잘 조화되면서도 편리함과 현대적인 세련미까지 지닌 시설물의 새로운 모습이 찾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가을에는 '전통사찰의 역사 문화환경과 고건축물의 보존'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통일원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게 될 북한문화재 조사는 북한 불교문화재와 북한소재 전통사찰의 현황을 파악해 통일후를 대비함과 동시에 남북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문화재 교류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넓혀가자는 취지로 시도된다.

이외에도 지난 96년 처음 실시해 불교문학계에 자극을 준 제2회 불교문학현상공모를 시와 소설 분야로 국한시켜 실시한다. 신도용 찬불가집을 제작해 불교음악의 대중화에도 역점을 둘 예정이다.

화엄사 등 성보문화재 조사와 사지실태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사찰과 연계한 지역문화 전반을 다룬 사찰문화안내서도 발간한다. 이 안내서에는 사찰연혁과 소장 성보에 대한 소개 뿐 아니라 찾아가는 교통편, 지역특산품, 숙박시설, 향토문화제 등의 안내도 담을 예정이다. 이경숙 기자

◇21일 예술의전당에서 창단연주회를 갖는 니르바나 실내악단. 강형진단장(앞줄 가운데)의 원력으로 창단된 실내악단은 앞으로 서양음악을 통한 불교포교에 앞장설 예정이다.

'니르바나 실내악단' 21일 창단연주회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등 현악기를 전공한 불자 예술가들 17명이 '니르바나 실내악단'을 결성, 21일 오후 3시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창단 연주회를 갖는다.

서양음악을 전공하는 기악인들 대부분이 기독교신자인 현 음악계 풍토에서 서양음악을 전공한 불자들이 모인 니르바나 실내악단(단장 강형진)의 창단은 불교계로는 처음으로, 니르바나의 향후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니르바나 실내악단 창단의 원력을 세우고 2년동안 준비한 단장 강형진씨(46·선화예고 강사)는 "그동안 불교계에 실력있는 전문 실내악단이 없어 아쉬웠다"면서 "종단이나 사찰의 행사에도 동참하고 산사음악회나 젊은 불자들을 위한 음악회 등을 열어 불교포교에도 앞장서겠다"고 의욕을 보인다. 이경숙 기자

전통공예 특별전

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

한양대 전통미술원(원장 김경자)은 이달말까지 한양대학내 백남학술정보관에서 '전통공예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전에는 전통 공예 장인들의 작품인 문방사우, 전통악기, 용기, 도자기, 소목, 화각, 은세공, 목공예 등 2백여점이 전시된다.

한편 3월 개원하는 한양대 전통미술원에는 신응수(대목장) 박찬수(목조각장) 유영기(궁시장) 조찬형(보령 소목장)씨 등 인간문화재들과 김익홍(도금·불교미술) 허길룡(목공예·불교미술) 김광렬(석공) 씨등 불교 전통장인들이 대거 겸임교수로 출강하게 된다.

욕망너머 사랑의 깨달음

하재봉 장편소설 '황금동굴'

시인이자 소설가인 하재봉씨가 내놓은 장편소설 〈황금동굴〉(이레 刊)은 주인공의 깨달음을 통해 가장 고전적인, 욕망의 세계너머 있는 본질적인 사랑의 해법을 제시한다.

2000년 1월 남자 주인공이 1년간 동거했던 한 여인을 되돌아 보며 시작되는 이 소설은 스피디하면서도 감각적이다.

태고의 신화와 새 밀레니엄, 사이버 공간과 현실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첨단시대의 사랑법을 가장 고전적인 색채로 그려내면서 진정한 마음의 세계를 발견하고자 하는 작가는 '황금동굴'이 모두의 내부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문화재 소식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DB화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은 올 7월까지 지방 9개 국립박물관 소장유물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하는 정보화 공공사업을 추진한다. 정보통신부의 지원금 6억여원을 들여 실시하는 소장유물 DB화 작업은 전국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4만8천여건을 멀티미디어 DB화 하는 것이다.

각 지방박물관별 가공 대상 데이터량은 경주박물관 6천건, 광주 5천5백건, 전주 6천건, 부여 8천건, 대구 3천5백건, 청주 4천5백건, 진주6천건, 공주 6천건, 김해 3천건에 달한다.

춘천 7층석탑 이전 새단장

보물 제77호 춘천 7층석탑이 보호구역 중앙으로 이전 복원된다. 춘천시는 21일 소양로2가 서부시장 앞에 있는 춘천 7층석탑을 1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석탑주변에 조성한 1백86평 규모의 보호 구역 중앙으로 10m 가량 옮겨 새단장한다고 밝혔다.

7층석탑 이전 복원건은 지난해말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이전 허가를 받음에 따라 3월 설계에 들어가 늦어도 10월까지는 석탑 이전 및 주변 조경사업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춘천 7층석탑은 고려 중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탑으로 화강암으로 조성하였으며 고려시대 연화문 배열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문화재대관 사적편' 개정판

75년 문화재관리국이 펴낸 〈문화재대관 사적편〉 상권 개정판이 나왔다.

사적편 상권 개정판은 경주 황룡사지를 비롯한 사지 13건, 김해 회현리 패총 등 선사유적 6건, 경주, 부여, 공주, 나주 등지의 고분 29건, 신라 무열왕릉 등의 왕·비릉 54건, 도요지 11건, 묘·비 7건 등 모두 1백20건이 수록되어 있다.

이번 개정판에 새로 수록된 사적지는 요지 1건이지만 그동안 이뤄진 각종 발굴성과 등이 반영되어 해당 사적마다 일괄적인 개설과 함께 관련 사진, 지정도면, 유적배치도 등이 실려 있다.

무령왕릉·천마총등 CD롬 발간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조유전)는 최근 중요 유적의 발굴조사 보고서 전산화 작업의 일환으로 '발굴조사보고서 모음집Ⅰ-무령왕릉, 천마총, 황남대총 남·북분' CD-ROM을 발간했다.

이번 CD-ROM에는 73년도에 발굴된 무령왕릉, 74년 천마총, 85년 황남대총 북분과 93~94년에 발굴된 황남대총 남분발굴조사보고서가 수록되어 있다. 감은사지 안압지 등의 발굴보고서는 11월경 발행할 예정인 모음집Ⅱ에 수록할 계획이다.

1999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東邦佛敎大學

(우 136-022)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92-1
전화: (02)763-0229, 763-8536

1982년 설립되어 불교 교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본 대학은 종합적인 불교교육기관의 면모를 갖추고
뜻있는 불자들의 입학을 바랍니다.

1. 모집 과정 및 학과
가. 대학과정 (2년제)
1) 불교학과 (정규 및 통신생) : OO명(편입생 약간명)
2) 범 패 과 : OO명
3) 불교미술과 : OO명
나. 교양과정(1년제) : OO명

2. 응시자격(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가. 대학과정
1) 신입생
가)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나)강원 사교과 이상의 수료자
다)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2) 2학년 편입생
가)정규대학 졸업자 나)불교교양대학 졸업자
나. 교양 과정
1) 교임 및 사찰 관리인, 승려 권속 및 신도회 간부
2) 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3) 기타 자격이 인정되는 자

3. 전형방법
가. 대학과정 : 필기시험 및 면접(공통), 실기시험(불교미술과)
나. 교양과정 : 서류심사 및 면접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9년 1월 18일(月) ~ 2월 20일(土)
(평일은 10:00~17:00, 토·일요일은 15:00까지, 공휴일 휴업함)

5. 전형일자 : 1999년 2월 21일(日) 10:00 ~ 17:00

6. 전형장소: 본 대학 강의실 및 실기실

7.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8. 제출서류
가. 대학과정 :
1)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4)고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5)주민등록등본 1부 6)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 사본 1부
7)반명함판 사진 6매
나. 교양과정
1)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이력서(반명함판 사진 6매 포함) 1부
3)주민등록등본 1부 4)재직증명서 1부

9. 전형료 : ₩30,000(불교미술과 ₩40,000)

10. 참고사항
가. 본 대학 이수자에게는 태고종단 포교사자격증을 수여하고, 대학과정을 이수한 태고종단 승려에겐 법계(대선)를 품수케 함.
나. 교양과정은 매주 2~3일 사이에 5강좌 강의함.
다. 기숙사 운영(지방학생 문의 바람)

11.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함.
나. 제출서류 가운데 승적증명서나 수계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나머지 서류만 구비하여 제출해도 됨.
다. 편입생 응시자는 수학 경력에 따라 편입토록 함.
라. 통신생은 월 1회(1박 2일)의 출석교육을 이수해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학처로 문의하기 바람.

12. 원서교부 및 접수처
가. 본 대학 교학처(☎763-0229, 8536)
나. 태고종 서울종무처(☎745-2030~2)
다. 태고종단 각 교구종무원
라. 경서원(☎733-3345~6)